

함평군, 제24회 함평모악산꽃무릇축제 관람객 맞이 총력

15일부터 17일까지 해보면 용천사 꽃무릇공원 일원 개최 ‘모악산 꽃무릇 착한 트레킹’ ‘꽃무릇 숲나들이체험’ 등

제24회 함평모악산꽃무릇축제가 오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3일간 해보면 용천사 꽃무릇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함평군이 개막을 앞두고 관람객 맞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해보면 용천사 꽃무릇공원에서 이상의 함평군수 주재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전반적인 준비사항 등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군수는 프로그램과 행사 시설물을 점검하며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등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제24회 함평모악산꽃무릇축제는 한국의 자연 100선에 선정된 꽃인 꽃무릇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행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체험 참가자가 모악산 정상을 배경으로 꽃무릇축제 손수건을 들고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올리면 함평축제관광재단에서 참가자 이름으로 1만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모악산 꽃무릇 착한 트레킹’

과 숲 해설사와 함께 꽃무릇 숲을 거닐며 꽃무릇 숲의 생태환경을 관찰하는 ‘꽃무릇 숲나들이 체험’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술을 빚는 기법을 배우는 ‘전통발효주 만들기 체험’, 푸른 잔디밭에서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꽃무릇 피크닉’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아울러 자이언트 플라워와 비레터를 설치해 관람객들이 꽃무릇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조성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올해 처음 군 주관 행사로 꽃무릇 축제를 개최하는 만큼 다양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관객들이 행복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갈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영암군, ‘국·도비 확보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여수 등에서 7급 이하 직원들 이틀간 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 진행

영암군이 7~8일, 여수시 마미유컨벤션 등에서 7급 이하 직원 40여 명이 참여하는 ‘국·도비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영암군의 정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정 운영방향에 대응한 맞춤형 국·도비사업과 공모사업 발굴 전략을 수립하는 자리.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 워크숍은 ▲공모사업 사업대상지 선정 시 유의사항 ▲민선 8기 환경 변화 및 정책 방향 ▲정부 예산 편성 절차 및 국비 확보 전략 ▲지역 특성 파악

및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아이템 개발 ▲사업 계획(안) 작성 및 우수 사업 선정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영암군 직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모뎀을 구성해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아이템 개발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그 결과 △삼호읍 외국인근로자 영암 정착 사업 △마한문화·역사 홍보 사업 △지역 특성 반영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사업 △취약계층 교통수단 지원사업 △난임검사 지원사업 등이 제시됐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 위한 특별지도·점검

무안군은 추석 연휴를 맞아 앞으로 3주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긴 연휴, 주말 등 점검 소홀 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

동 실태, 운영일지 작성,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폐수배출시설 최종방류수 수질 검사, 사업장 내 폐기물 관리 실태와 적정처리 여부 등 관련법 준수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취약지역과 민원 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무안=이기성기자

영광군 “칫솔 바꿔준 데이(DAY)”

매주 수요일은 칫솔 교체하는 날 행사...300여 명에 900여 개 교환

영광군은 지난 6일부터 ‘칫솔 바꿔준 데이(DAY)’ 행사를 지역주민 300여 명에게 900여 개의 칫솔을 교환해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영유아(6세 이하)용 칫솔을 100명에게 추가 교환해줄 예정이다.

6세에 첫 영구치인 어금니(구치)가 나오는 시점인 만큼 조기에 구강관리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현 칫솔모 모양에 따른 칫솔질 방법

을 분석하여 올바른 칫솔질 설명과 구강보건교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점기 보건소장은 “성인뿐만 아니라 영유아기부터 올바른 칫솔 교체시기 습득으로 스스로 구강 관리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작은 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만큼 매주 수요일 선착순 3,000명 한정 물품소진시까지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지역주민에게 ‘칫솔 바꿔준 데이(DAY)’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칫솔 바꿔준 데이’ 관련 안내는 보건소 건강정책팀(☎350-4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서희권기자

신안군,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캠페인 실시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위해 찾아가는 행정 펼치



신안군은 73개 유인도서가 있는 지역이고 고령 인구가 많아서 ‘찾아가는 자원순환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 캠페인의 주제는 ‘올바른 분리배출, 어렵지 않아요’이며,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군내 8개 경로당에 직접 가서 분리배출 시범과 체험, 퀴즈를 통해 주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양도 많고 복잡해서 배출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전단, 영상, 플래카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홍보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등이 섞여서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

게 되면 한정된 예산과 인력, 장비에도 불구하고 선별작업에 환경미화원을 더 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신안군은 지역 여건과 인구, 복잡한 배출방법 등 위기 요인을 인구조적 경로당이 사람방 역할을 하는 등 오히려 홍보의 기회 요인으로 생각하고, 배출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찾아가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

신안군은 이 캠페인이 분리배출 확산의 첫 걸음은 물론, 폐기물처리에 대한 업무 부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우량 군수는 “분리배출은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이며,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며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주민의 분리배출 의식과 실천을 높이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